메카사태와 油価전망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Ⅰ. 머리말

×년 3월 22일 3발의 핵폭탄을 탑재한 이란의 팬텀기 편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왈 유전에 폭격을 개시한다.

「폭탄 투하!」. 30초후 「3발 모두 무사히 폭발. 현재 귀환중」. 조종사의 교신이 확성기를 통해 이란 지하사령부에 전달된다. 순간 지하사령부는 승리의 환호성으로 뒤덮인다.

같은 날 06시 57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 팬텀기 17대가 이란 영토안으로 진입 7분뒤. 사우디 폭격편대는 이란의 공군기지 프람샤할을 무차별 공격한다. 또 다른 핵폭탄을 탑재하고, 활주로에 대기중이던 3대의 이란 폭격기중 1대가 폭탄을 맞는다. 그 충격으로 핵폭탄이 폭발한다. 연쇄충격은 나머지 2대의 폭격기에 실려있던 핵폭탄을 터뜨린다. 中東천지는 잿빛구름으로 뒤덮이고 아비규환이 일어난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 폴 에드맨이 지난 76년에 발표한 「79년의 大破局」이라는 소설의 클라이맥스다. 이 소설에서 中東核戰은 페르시아諸國의 패권다툼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核무기를 먼저 개발한 이란이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고, 끝내는 中東전역이 비극의 終場을 맞는 것으로 막이 내린다.

지난 7월 31일 聖地 메카에서 일어난 대참사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메카에서 「反美, 反蘇, 反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던 이란 시아波 회교순례자들과 이를 진압하던 사우디보안군 사이에 유혈충돌이 벌어져 4백2명이 사망하고, 6백94명이 부상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세계사는 엄청나게 바뀌었지만, 「中東의 화약고」는 변하지 않고 있다. 팔레비는 가고 호메이니가 등장했으나, 이란의 패권주의와 과격한 민족주의는 아직 살아 있다.

Ⅱ. 메카사태의 배경

페르시아湾을 초긴장상태로 몰아 넣고 있는 메카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이란·이라크戰에서 이라크를 지지하고 있는 사우디에 대한 이란의 불만폭발이지만, 내면적으로는 1천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회교 소수파인 시아派와 다수파인 수니派간의 역사적인 반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79년 이란회교혁명의 성공으로 팔레비王政을 타도, 회교공화국을 탄생시킨 이후 세력이 확대된 페르시아系 이란 시아파와 사우디, 쿠웨이트등 보수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系 수니파간의 대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초 이란·이라크戰도 이란의 회교혁명수출을 우려한 아랍국들의 묵시적 승인 아래 이라크가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시작된 것이고 보면, 이 역시 실상은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대결도식으로 압축된다.

수니파와 시아파간의 반목항쟁은 7세기 중엽 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사망한뒤 후계자의 계승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비롯됐다.

마호메트 死後 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4대 칼리프에 취임했다가 곧 반대파에 의해 암살되자 스스로를 「시아 알리」(알리의 黨派)로 부르며 알리를 추종하던 회교도들이 알리의 장남을 5대 칼리프로 옹립했다.

그러나 그 역시 다수파에 의해 칼리프의 지위를 찬탈당했고, 그 이후 알리의 자손으로 하여금 마호메트의 뒤를 잇게 하려는 「시아 알리」 회교도들의 노력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써 이후 「시아 알리」는 다수파인 수니파로 부터 계속 박해를 받는 역사를 갖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시아파는 이들 「시아 알리」의 후손들로 기성의 권위를 부인, 서구문명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순수한 알라神과 선지자 마호메트의 가르침, 즉 코란과 하디드(마호메트의 말씀과 생활)에 의해 살아가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

또한 이란 시아파를 중심으로 하는 회교원리주의는 1천년 이상의 수니파에 의한 박해, 11세기 십자군전쟁 이후 서구기독교에 의한 수난, 근세 서구열강의 식민지정책과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강탈당한 회교의 가치와 독자성의 회복을 회교 율법에 의한 통치와 「지하드」(聖戰)를 통해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反서구에서 나아가 이집트, 사우디, 이라크등 온건아랍국들이 근대화과정에서 서구문명에 의한 「회교의 퇴락」을 초래했다면서, 이들 국가의 지도체제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팔레비 이란왕조를 붕괴시킨 호메이니체제의 등장은 부패왕정에 대한 시아파회교도들의 聖戰의 승리였으며, 회교지도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政教一致의 통치형태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復古的 이슬람의 대두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中東戰에서 드러난 아랍의 무기력과 아랍大義의 균열은 회교민족주의에 강한 자극제가 되었으며, 회교원리주의의 反서구의식은 호메이니 등장 이후 과거 팔레비를 지원해온 美國에 대한 반감으로 구체화됐다.

알리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시아派 회교도의 순교정신은 자살테러를 서슴치 않는 과격성을 드러내 81년 10월 사다트 이집트대통령 암살, 83년 10월 레바논주둔 美해병사령부 폭파, 85년 6월 美TWA여객기납치사건등 수많은 中東테러의 근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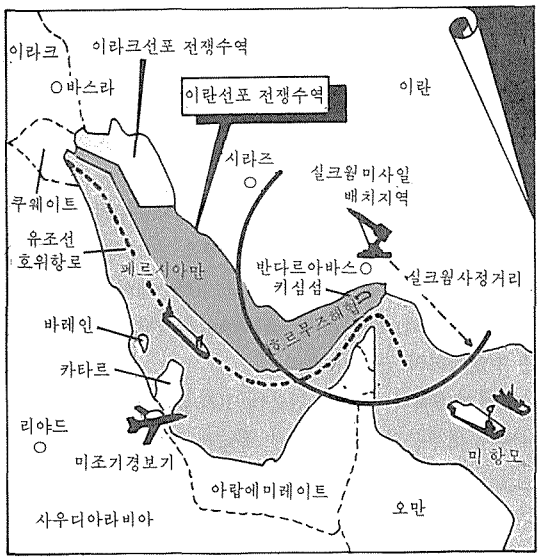
전세계 9억의 회교도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이들 시아派는 대부분의 아랍국가에 폭넓게 분포돼 있으면서 정치·경제적으로 기반이 약한 소수세력으로 존재하고있다. 이 때문에 「弱者의 구제」를 운동의 원리로 삼고 있는 이란의 회교원리주의는 이들 해외 시아파회교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반면에 온건아랍국들에게는 이들이 존재가 불안의 씨앗이 되고 있다.

Ⅲ. 石油市場에 미치는 영향

메카의 유혈사태로 출발된 페르시아湾 일대의 긴장상태로 국제원유 시장이 또 한차례 격랑에 휘말려들고 있다. 사태 발전여하에 따라 최악의 경우 원유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돼 3차 석유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폭 38㎞의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수송량은 약 6백만~7백만b/d로서 세계원유무역량의 30% 정도가 된다.

호르무즈해협이 완전 봉쇄될 경우, 페르시아湾 이외 국가의 증산능력은 1백70만b/d, 사우디 얀부 파이프라인의 1백 60만 b/d 추가공급을 감안하더라도 3백만~4백만b/d의 공급감소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르시아湾 沿岸國의 原油수출[1]

(단위 : 백만B/D)

	생산능력	생산량	수출량	페르시아湾 통과량
페르시아만沿岸國計	18.86[2]	11.42	9.85	6.08
사우디아라비아	8.80	3.9	3.38	2.00[3]
이란	3.00	2.2	1.65	1.65
이라크	2.00	1.9	1.61	-
쿠웨이트	2.30	0.95	0.85	0.85
아랍에미리트	2.13	1.19	1.11	1.11
카타르	0.25	0.25	0.24	0.24
中立地帶	0.40	0.38	0.38	0.19
오만		0.6	0.59	
바레인		0.05	0.04	0.04
自由世界計	52.0	39.21	18.2	

〈註〉 1) 추정 통계이며, NGL은 제외됨(87년 4월 기준)
2) 오만과 바레인 제외
3)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라스타누라항에서의 原油수출중 1백만B/D 이상이 파이프라인으로 수출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사 봉쇄된다 하더라도 지난 두 차례의 석유위기때와 같은 석유공급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 근거로서 첫째로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산유국들의 산유량이 지난 6월 총회에서 합의한 1천6백60만b/d의 생산한도를 초과하여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 할지라도 각국의 비축유와 산유국의 추가생산능력을 감안할 경우 수급핍박사태에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OPEC의 7월 현재 추정산유량은 1천8백20만b/d로 산유쿼터인 1천6백60만b/d보다 1백60만b/d를 초과생산하고 있다.

둘째는 세계각국의 비축물량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지난 8월 1일 현재 세계 전략비축유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美國, 西獨, 日本등의 비축물량은 1백6일분~1백76일分에 이르고 있고, 자유세계 전체의 비축물량도 74일分을 확보하고 있다.

선진국의 전략비축 방출 능력

	물량 (百萬배럴)	방출능력 (百萬b/d)	放出 지속일수
美國	528	3.0	176
日本	151	1.0	151
西獨	53	0.5	106
計	732	4.5	

〈자료〉 PIW '87. 7. 20

自由世界 備蓄油 현황

('87. 8. 1 현재)

		물량 (百萬배럴)	지속일수 (소비기준)
戰略備蓄		749	16日
민간비축	原油	1,295	28日
	製品	1,384	30日
	計	2,679	58日
總在庫		3,428	74日

셋째는 이란의 군사력으로는 美해군 및 공군력에 대항하여 호르무즈해협을 완전봉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기습적인 공격으로 해로를 위협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기 힘들 것이라는 또다른 이유는 해협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는데 있다. 사우디, 이라크등 이란이 적대시하고 있는 나

라들은 육로로 통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수출할 수 있으나, 이란은 원유수출물량의 대부분을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제원유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이 다발적으로 피격되거나 이란·이라크戰이 확대될 경우, 석유공급은 수시로 1백~2백만b/d 정도 긴축현상을 보이고, 이는 수급구조적 또는 심리적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제원유가격은 배럴당 18~20달러선에서 페르시아湾사태의 전개방향에 따라 배럴당 2~3달러 정도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日本에너지 경제연구소도 페르시아만에서의 석유공급 불확실성의 증가로 연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선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나리오別 油価전망

	油　　價	
케이스 1	18~20$/B	○이란-이라크가 상대국의 유조선을 계속 공격할 경우 ○페르시아만에서의 石油공급 不確實性이 증가, 연말에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에 접근
케이스 2	25~30$/B	○이란-美國간 직접적 軍事대결의 경우로 호르무즈해협이 중대위협을 받아 일시적이나마 배럴당 25~30달러로 상승 ○그러나, 이란도 수출의 대부분을 호르무즈해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가능성이 희박하며, 설사 봉쇄된다 하더라도 長期持續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油價는 다시 배럴당 20달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하락
케이스 3	16~18$/B	○이란-이라크의 완전한 또는 일시적 休戰의 경우로 경제복구를 위한 原油생산 및 판매증대로 현재의 固定油價水準인 배럴당 16~18달러로 하락

〈자료〉 日本 에너지경제연구소

Ⅳ. 맺는말

메카사태는 기본적으로 OPEC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OPEC회원국의 정치, 종교적 사태는 OPEC의 기본정책에 표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의 81차 총회에서 보였던 사우디와 이란의 협조관계는 이번 메카사태를 계기로 손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우디그룹과 이란그룹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서 OPEC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자원이 따로없다
절약이 자원이다